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운

shalom! 예루살렘에서 문안드립니다. 11월이 들면서 한국의 날씨도 많이 춥지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장막절이 지나고 얼마 전 첫 번째 비가 내렸는데 그 후로 이스라엘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더해 우리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평안하신지요? 라는 인사로 시작하기에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심기를 짐작하며 멀리서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저희들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며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어 무너진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과 이 계절을 나는데 필요한 따뜻한 온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시 피어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하다스의 고백

6년째 이 곳에서 사는 동안,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 싶다가도 생초보자가 되고, 알겠다 싶다가도 당채 모르겠는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들어 낙담하기도 합니다. 또 나보다 부자고 나보다 똑똑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지금껏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만만치 않은 물가지만 넘치지는 않아도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작게나마 베풀고 살았습니다. 둘째, 셋째를 이 땅에서 유대인 산파와 함께 무사히 출산하였고, 여섯 식구 모두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장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예배드리고, 신학생들이 어렵게 배운다는 히브리어를 현지에서 원어민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유대인 자매의 가족이 먼저 저희에게 다가왔고 매달 집으로 초대해서 풍성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왜, 이 가족은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고 사랑해줄까? 아직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이 가족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과 위로를 가족 모두 고백합니다. 섬기러 왔는데 오히려 지극한 섬김을 받고 있으니깐요. 감사는 넘칩니다. 낙담되고 도무지 일어날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무력함 속에서도 감사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바스려질 것 같이 메마른 땅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비처럼,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눈부시도록 푸른 하늘처럼 그분의 은혜는 늘 우리를 감싸고 있고 차고도 넘칩니다.

■ G.T.I 사역 이야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까지 약 한 달 간 60번 도로 선상에 위치한 유대인 마을과 아랍 마을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귀한 만남과 교제 그리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요즘 저는 아직 누구도 달지 않은 미지의 세계, 새로운 땅을 밟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예전과 다른 이러한 모습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 달라진 변화라 생각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더 나은 이유를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감사한 것은 60번 트레일의 끝자락에서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동역자로부터 앞으로 이 길에 동행하겠노라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함께 길을 나설 수 있는 동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용기를 줍니다.

얼마 전 아랍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한 현지인으로부터 그곳은 저희 같은 동양인이 처음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의 방문은 그들에게 무척 신기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우리를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해서 현지인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는 대로 찍고 주어진 시간 편하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저희들에게 다가온 또 다른 젊은 형제들 가운데 한 형제가 제게 자신의 휴대폰에 담긴 저희들 사진, 특히 제 사진을 여러장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찌된 일일까? 이 형제들이 우리가 있었던 곳에 그들과 함께 있었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더군요. 알고 보니 우리로 치면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척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진들은 모두 저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정보요원에게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별일은 없었지만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앞으로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지만 그 때와 다른 점 하나는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동행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 베두원 마을 이야기

베두원 마을은 요즘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나름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요즘 마을 사람들은 우기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세지 않도록 천막 안에 비닐을 씌우는 일과 물골작업, 그리고 땀갈을 구비하는 일 등등..., 이번에 저희 팀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천막 보수(비닐작업)에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기를 보내야하는 베두원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이 계절을 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장막절 풍경



우리의 만남 4주년



야곱의 두자녀와 함께



또 한명의 동역자



감전 철조망(유대인 정착촌)



함께하는 기도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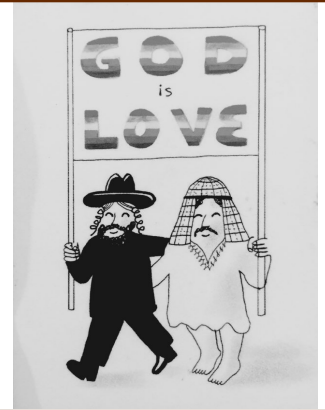


우기를 준비하며...

「 기도제목 」 “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1:21)

1.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뤄지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2. 요압 아저씨 가정과 베두원 마을이 복음화 되도록
3. 새학기를 맞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4. 이번 달 G.T.I 대상 지역인 44번 도로에 위치한 유대인 마을들을 축복 하소서
5.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아이들 비염)하게 이 계절(우기)을 보낼 수 있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온)
- 외환(하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 프로젝트
- 외환(하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Rev. JAESUK JUNG

※ 연락처 :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CP123456789KR)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